창작의 산실을 가다 〈4〉 화가 윤애근

담양 일대의 풍경을 연작으로 그리고 있는 윤애근씨의 작업 모습.

봄은 산수유 가지에서부터 왔다. 담양군 남면 정곡리, 드문드문 자리 잡은 농가의 돌담 주변이 요즘 "봄이 오겠다"며 소란스럽다. 돌담에 가지를 늘어뜨린 산수유 꽃봉오리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듯 절정을 맞고 있다. 마을 입구의 홍매도 붉게 꽃봉오리를 채워가고 있는 중이다.

독자적인 한국화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윤애근(66·전남대 예술대학 미술학과) 명예교수의 작업실인 정산화실이 자리 잡고 있는 이 마을은 골이 깊어 봄이 소리없이 온다. 들녘에 무리지은 꽃들이 일제히 꽃을 피운다면, 이곳은 골짜기 곳곳에 핀 꽃들이 해를 따라 몸을 키우고, 서서히 봄을 준비한다.

▲지난 2일 윤애근 화백이 담양군 남면 정곡리 돌담을 거닐며 작품 구상을 하고 있다.

"농촌·자연에 진 빚 이제 갚아야죠"

전남대교수 퇴임후 담양 '정산화실'서 제2 예술인생

식영정·소쇄원 등 담양 일대 풍경 연작 시리즈 준비

윤 교수가 화구를 챙겨 이곳으로 옮긴 건 지난 1996년이었다. 전통과 격식을 중요하게 여기던 가문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고무줄 놀이도 제대로 해보지 못했던 '서울 깍쟁이' 그녀는 당시 곤충의 모습에서 따 온 이미지를 표현했었다.

작품의 젖줄이었던 '곤충을 잘 볼 수 있는 곳'을 찾던 그녀는 자연스레 야트막한 산과 무성한 대밭이 있는 이곳을 창작의 산실로 삼았다. 낡은 외양간의 바람벽을 허물고, 숙식과 창작이 가능한 지금의 정산화실을 지었다. 정산(晶山)은 맑은 산빛을 좋아하는 그녀의 호이다.

작업실에는 먼발치의 무등산과 집 앞 대밭이 잘 보이도록 많은 창을 냈다. 날갯짓을 멈춘 곤충들이 잠시 유리창에 앉아 쉬면 그녀도 덩달아 붓을 놓았다. 요즘도 그녀는 창문 너머 풍경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다. 계절 따라 달라지는 산 빛깔과 다랑이 논의 벼는 그녀의 작품을 더욱 풍부하게 해준다.

또 언뜻 유리창에 비쳐 집 밖으로 뛰쳐나가면 어느 산가 모습을 감춰버리는 호랑나비는 그녀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작업이 되지 않는 날이면, 하염없이 마을 돌담길을 걸을 수 있어 좋았다. 바람이 부는 날은 대숲에 들어, 잎사귀들이 서로 몸을 비비는 소리를 듣곤 했다.

그녀는 종이를 여러 겹 붙인 겹장지로 곤충의 더듬이를 형상화하고 있다. 그녀가 산골에서 살며 더듬이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물질을 중요시하는 현대인을 위해 '쉼표'같은 작품을 창작하기 위해서다.

그녀가 표현하는 곤충의 더듬이는 다름 아닌 정신이다. 더듬이가 떨어진 채 방향을 가늠하지 못해 뒤뚱거리는 곤충의 모습에서 현대인의 불안한 일상을 찾아낸 것이다.

그녀는 지난해 정년 퇴임한 뒤 이곳에서 '제2의 예술 인생'을 살고 있다. 후학을 지도하다 보니 작업 시간이 늘 부족했던 그녀는 퇴임 후 정산화실에서 작업에만 몰두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자신의 작품을 풍부하게 해줬던 농촌에 빚(?)을 갚기 위해 더욱 분주하게 보내고 있다. 그녀는 올해 식영정, 소쇄원 등 담양지역 풍경을 하나하나 화폭에 담고 있다. 이들 작품을 모아 전시회를 열 계획도 세워 놓았다.

"농촌은 매일 색깔이 달라져요. 벼를 그리기 위해 나가보면 어제의 빛깔이 아니거든요. 농촌은 화가에게 살아있는 '색채 교과서'입니다."

요즘 젊은 작가들이 풍경을 카메라에 담아 그림을 그리는 것과 달리, 그녀는 현장을 직접 본 뒤 스케치를 해 작품을 창작하고 있다. 사진으로 기록되는 풍경은 왠지 생동감이 없어서다. 그녀가 매일 산책하며, 산과 들을 눈에 담아 오는 이유도 자연을 더욱 생동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다. 이 때문에 평생 자신의 작품 소재가 돼 줬던 자연에게 빚을 갚기 위한 그녀의 이번 작업이 더욱 고달프다. 그녀는 요즘 달력, 이면지 등 하얀 종이만 보면 담양의 풍경을 스케치하고 있다. 또 다양한 기법과 재료 실험도 함께 곁들이고 있다.

"현대라는 말에는 변화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창작을 평생의 업으로 삼고 있는 화가는 늘 이 말을 잊으면 안돼요. 작품의 자연스러운 질감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재료를 연구하고 있어요."

퇴임 후 그녀의 가장 큰 변화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너그러워졌다는 점이다. 최근 그녀는 손수 수의(壽衣)를 마련하기도 했다.

"죽음을 준비하면 삶이 맑아집니다. 작업실 앞에 핀 풀꽃들이 들려주는 소리도 작품의 소재가 되고, 돌담에 내려앉은 봄빛은 세상 가장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앞으로도 자연의 소중함을 화폭에 담아내는 행복한 화가가 되는 게 가장 큰 소망입니다."

그녀가 정산화실에서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것은, 그래야만 화려했던 봄, 여름, 가을이 더욱 의미 있는 시절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즘 정산화실의 불빛은 밤이 깊었어도 꺼지는 법이 없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사진=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 약 력

▲1943년 서울 출생 ▲중앙대학교 회화과, 홍익대학교 대학원 졸업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학장및 예술연구소 소장, 미국 델라웨워 대학 국비 파견교수 역임 ▲개인전 23회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초대작가, 광주시립미술관 올해의 작가 ▲현재 전남대 미술학과 명예교수